

서부발칸에 대한 EU의 원조 동향

I. 개요

1. 개요 설명

EU는 각종 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1991년 이후 최근까지 80억 유로 이상을 서부발칸(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iH),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SCG) 등 5개국) 지역에 지원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EU 회원국 차원의 개별 원조까지 포함할 경우 그 규모는 200억 유로 이상으로 추산됨.

□ 1990년대에는 역내 위기관리 및 재건을 위해 EU의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ECHO), 재건 프로그램(OBNOVA), 식량안보 프로그램(Food Security), PHARE(중·동유럽 10개국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실시된 EU의 원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55억 유로가 제공되었으며 2000년 12월 이후에는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인 CARDS(Community Assistance for Reconstruction, Development

and Stabilization)를 통해 최근까지 약 30억 유로가 지원됨.

※ PHARE는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2004년 5월 EU에 가입한 8개국) 및 불가리아, 루마니아의 EU 가입 지원을 위해 1989년부터 실시된 원조 프로그램임.

2. 원조 규모

SCG에 대한 EU의 원조규모는 1990년대 밀로셰비치 정권 하에서 대규모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약 15억 유로(코소보 포함)에 그쳤으나 2000년 10월 전환경제 체제 개시 이후에는 CARDS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까지 약 20억 유로의 원조를 받음.

II. CARDS 프로그램의 도입

1. 도입 배경

- 상기와 같이 1990년대를 거쳐 서부발칸에 대한 원조는 일관성 없이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 2000년 5월 EU 집행위는 서부발칸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의 효율적인 원조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기함.
- 동 제안은 2000년 12월 각료이사회에서 CARDS 시행에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 No. 2667/2000)이 채택됨으로써 공식화되었으며 총 지원 규모는 2000~2006년간 총 46.5억 유로로 결정됨.
- 또한 CARDS 프로그램은 서부발칸의 유럽통합 과정인 안정화 및 제휴 과정(Stabilization and Association Process)의 개시와 더불어 본격화됨으로써 역내 국가의 EU 통합을 위한 개혁노력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목표를 갖게 됨.

※ 한편, 서부발칸 지역을 위한 CARDS 프로그램과 중·동구 국가에 대한 3개 원조프로그램(PHARE, ISPA, SAPARD)은 원조대상 국가의 상당수가 EU에 가입함으로써 2007년 이후에는 Pre-Accession Instrument 프로그램으로 통합될 예정임.

2. CARDS 프로그램의 유형

- CARDS 프로그램은 서부 발칸 5개 개별 국가 차원의 원조(CARDS National Program)와 더불어 지역적 차원의 협력(CARDS Regional Program)을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지원범위와 내역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에서 발간하는 국별 전략

보고서(Country Strategy Paper) 및 지역전략보고서(Regional Strategy Paper)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음.

-특히 지역적 차원의 CARDS 프로그램은 사법 및 내무협력(국경 관리, 조직범죄 퇴치 등), 행정 능력 강화(공공개혁, 관세 등), 경제·사회 개발(경제개혁, 교육 등), 민주적 안정화(시민사회 양성, 난민 귀환 등), 환경보호 등 5개 우선순위에 대해 지원되어 왔음.

- 각 프로그램의 관리 주체는 국가별 프로그램의 경우 알바니아, BiH, 크로아티아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EU 대표부가, SCG와 마케도니아의 경우에는 유럽재건청(European Agency for Reconstruction)이 각각 맡고 있으며 지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EU 집행위 산하의 EuropeAid Cooperation Office에서 관리함.

III. CARDS 프로그램에 의한 원조 내역

1. 전체 원조 규모

- CARDS 프로그램은 2000~2006년간 총 46.5억 유로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년간 예산 배정계획(multi-annual indicative program)에 의해 2000~2001년에는 15억 유로, 2002~2004년간에는 20억 유로가 각각 배정된바 있으며 2005 및 2006년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 수립 단계에 있음.

〈각국별 CARDS 프로그램 원조 규모〉

(단위: 백만 유로)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알바니아	35	37	44	46	58	220
BiH	102	105	71	63	65	406
크로아티아	21	60	59	62	76	278
마케도니아	21	56	41	43	51	212
SCG	648	425	359	331	297	2,060
합계	827	683	574	545	547	3,176

2. 각국별 원조 규모

- 2000~2004년간 지원규모를 보면 SCG(코소보 포함)에 대해 전체 원조예산의 60%가 지원되었으며 여타 국가에는 BiH를 제외하고는 총 원조 규모의 10% 미만으로 지원됨.
- 2005년에는 크로아티아(2004년 6월 EU 가입후 보국 지위 획득)를 제외한 여타 4개국을 대상으로 CARDS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국가별 원조규모에 대한 배정작업이 진행 중임.
- 다만 SCG 및 마케도니아에 대한 2005년 원조 규모는 지난 4월 11일 EU 집행위를 통과하였으며 각각 2.4억 유로(코소보 54백만 유로 포함) 및 34백만 유로로 결정됨.

3. 지역협력에 위한 원조 규모

- 지역적 차원의 원조는 전체 국별 원조규모의 약 10% 내외에서 결정되어 왔는 바, 2000~2001년간 46백만 유로, 2002~2004년간 197백만 유로가 지원되었으며 2005~2006년간 원조규모는 2004년 12월 EU 집행위에서 85백만 유로로 결정됨.

IV. 관찰 및 평가

1. 관찰

서부발칸 지역은 유럽의 변방으로 역사상 서유럽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역설적으로 동 지역의 1990년대 민족간 갈등 및 내전을 겪으면서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부상하자 동 지역의 안정이 유럽 전체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한 EU로부터의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EU는 150여개국을 대상으로 연간 70억 유로 규모의 원조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CARDS 프로그램을 통해 서부 발칸 지역에 지원되고 있음.

- 서부발칸에 대한 EU의 원조 프로그램은 EU의 서부발칸 끌어안기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EU로서는 서부발칸으로의 EU 확대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 보다는 역내 안정이라는 안보전략상의 동기로 인해 서부발칸지역의 EU 가입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평가

서부발칸 각국별 원조현황을 보면 SCG에 대한 원조규모가 여타 국가에 비해 월등히 많은 바, 이는 SCG의 복구 및 재건 수요뿐만 아니라 국가 규모(인구규모는 역내 전체의 50% 해당하는 1천만 명), 지역 내 위상,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이 전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우리 정부의 對세르비아 원조는 코소보사태 당시 9.6만 불 긴급지원 및 2002~2004년간 KOICA 물자공여사업 형태로 120만 불을 지원하였는 바, 세르비아를 포함한 서부발칸 지역에 대해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對EU 외교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자료: 주세르비아 대사관]